

정도경영 · 기술경영 · 품질경영 실천

세계적 제약 포장기계 업체로 거듭날 터



◀ 이원우
(주)세종파마텍 대표이사

홍수처럼 쏟아지는 인터넷 정보 시대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끝없는 국내·외적 경쟁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 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확고한 신조로 20여년 동안 발전을 거듭해 온 기계 업체가 있다.

(주)세종파마텍(대표이사 이원우)은 1989년 '고객 존중'과 '기술 혁신'을 기업 이념으로 삼고 창립됐다. 지난 1993년에는 '무역업 등록 허가'를 취득, 96년에는 '무역의 날 수출탑'을 수상했으며, 98년 'KSA/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을 취득한데 이어 2001년 3월 (주)세종기계에서 현재의 (주)세종파마텍으로 상호

를 변경했다. 또 2001년 5월에는 인천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의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업계 최고의 수출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부평 청천동에 위치한 (주)세종파마텍은 1, 2층에 조립현장과 자재창고, 3층에는 테스트 룸, 4층에는 종합 사무실 및 임원실을 두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고형 파우더 수출업체 최고위치 점해

그 동안 (주)세종파마텍은 제약 및 식품용 핵심포장기계를 자체 기술력으로 제조해 국내 및 해외 시장에 공급, 제약 기계 제조 전문 업체로 인정받아 현재, 고형 파우더 업체로는 최고의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주)세종파마텍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이원우 사장의 경영 철학이 한 몫을 차지했다.

이원우 사장은 제품을 만들 때 "고객은 언제나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쓴다.

"세종파마텍을 운영하면서 윤리와 도덕에 입각한 경영을 신조로 삼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과 경쟁을 했습니다."



▲ 인천 부평에 위치한 (주)세종파마텍

“정도경영·기술경영 태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하는 이 사장은 무엇보다도 기술력의 우위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생각해 기술력을 기반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1993년 자동충전기 미주지역 수출

(주)세종파마텍의 주 생산제품으로는 자동충전기(Automatic Capsule Filling Machine), 정제기(Rotary Tablet Press), 정제코팅기(Automatic Coating System)와 믹서기(High speed mixer)가 있다.

이 중 자동충전기는 화학, 제약 및 식품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으로 powder와 pellet 형태의 제재를 capsule속에 충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SF-40N 모델은 power를 충전할 때 최대 40,000/capsule/h, SF-100N은 100,000capsule/h의 capsule이 생산된다. 특히 SF-100N에는 자동샘플링머신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용 Discharge Chute를 부착해 작업중에 샘플링 체크를 가능케 했다.

자동충전기는 지난 93년 미주지역에 수출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에 유럽 및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수출되기도 했다.

이원우 사장은 “고객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품질검사의 제도화 및 분석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한 것이 수출을 성장시킨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히면서 품질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Powder상태로 공급되는 원료를 일정한 함량으로 조절·가압 후 정제를 성형하는 정제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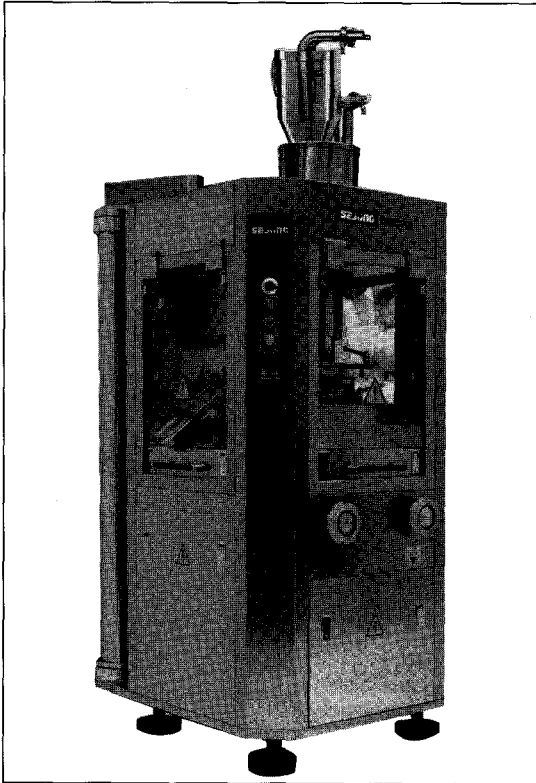
지난 99년 “로터리식 정제 압축성형기”로 특허 등록됐으며 HRC, GRC, MRC의 세 가지 모델이 있다.

MRC는 현재 제약 업계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GRC는 제약 회사 실험실 및 연구소에서 이용, 시간당 50,000에서 10,000개 정도의 정제가 가능토록 탁월한 기능을 지닌 정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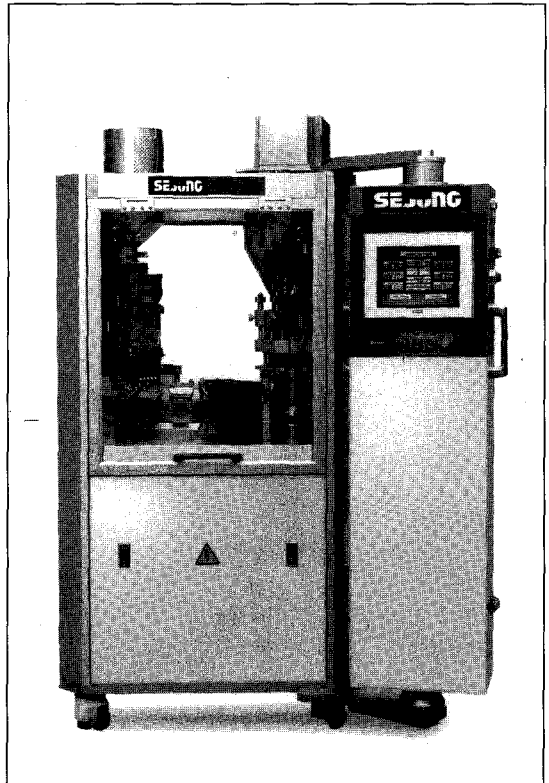
MRC정제기의 모든 기능을 포함할 수 있게 제작된 HRC는 크기와 무게에 따른 진동과 소음을 줄인 방진 시스템을 적용해 대용량이 필요로 하는 건강식품 제조에 이용 가능토록 해 유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원우 사장은 약품이나 식품 정제의 표면을 film 및 sugar 코팅할 때 이용되는 정제코팅기에 대해 “타사 기종의 경우에는 드럼하부의 Damper를 작동시켜 배출되는 정제를 장착된 TRAY에 담아낸 후 다시 원하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해야하는 반면 세종의 제품은 전면 배출구를 통해 원하는 용기에 직접 담는 방식으로 고안됐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또한 믹서기는 의약품 식품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며 혼합, 조립, 세립, 과립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다양하게 처리하고 정제 공전을 통해 결합력이 생기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이다.



▲ 정제기 GRC-18



▲ 자동충전기 SF-40



▲ (주)세종파마텍 작업현장

아이템 개발에 주력할 터

창립 이래 거침없이 발전을 거듭해 온 (주)세종파마텍에도 시련의 순간은 있었다.

바로 IMF 이후 부천공장에서 현재의 부평공장으로 사업장을 확장·이전하면서 한번의 고비를 맞게 됐는데, 이백현 이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경영 자금난에 조금은 어려웠던 시간이었지만, 팀워크의 향상과 조직력·경쟁력의 개선을 위해 애쓴 결과 내실을 다질 수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현재, (주)세종파마텍은 세계 시장에서 일류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더 나은 발전을 추진 중이다.

이원우 사장은 “유럽 우수 메이커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술과 품질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고 특히, 아이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했다.

이 외에도 국제 수출무대에서 제약 제조 기계 메이커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품질향상 시스템의 확립 및 테스트 룸 설치운용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원우 사장은 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타 기업 기계의 무분별한 카피(copy)를 지적하면서 업계 자체의 독창적 개발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할 것을 부탁했다.

지난 89년 이래, 고객에게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가치있는 사고로 발전을 거듭해 온 세종파마텍은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도 고유의 경영 이념으로 지금까지처럼 발전을 거듭하리라 확신한다. ☐

박초혜 기자